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5명의 직장을 가진 기혼 중년 여성들의 박사 과정 수행 경험에 관한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탐색하였다. 직장을 가진 기혼 중년 여성들의 대학원 수행은 아내, 어머니, 직장인, 학생 등의 다중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동반한다. 연구자는 박사 과정 수행을 경험한 기혼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입문 동기, 박사 과정 수행 중의 어려움, 박사 과정 수행 중의 보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입문 동기는 차별에서 오는 부담감, 내적 성장에 대한 갈망, 외적 보상에 대한 열망으로 분류하였고, 어려움은 학문적 성장에 대한 어려움, 학문 외적인 어려움, 보람은 학문적 보람과 학문 외적 보람으로 분류하여 박사 과정 수행 경험이 함의하는 의미와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는 박사 과정에 다니는 기혼 중년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기혼 중년 여성

박사 과정 수행경험

다중 역할 수행

내러티브 탐구

기혼 중년 여성의 박사 과정 수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Married Middle-aged Women

서 현¹⁾ 윤 경 아²⁾ 김 윤 주³⁾
Hyun Sea Kyeong Ah Yun Yun Joo Kim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물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갖추는 교육 역량의 필요성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현 시대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는 여러 학문 분야 간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노상우, 안동순, 2012). 스마트 기계들의 범람과 인공지능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미래 인재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윤리적 인성의 정서 역량, 소통과 협력의 사회적 교류 역량, 자기 주도적 생애 학습 역량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권귀염, 2018). 갈수록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진취적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적인 역량 증진을 위해 점차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내 외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 및 취업률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박사 학위 졸업자는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11%나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효선, 2013). 대학원 진학은 관련 학문의 역량 심화와 함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편이며, 더욱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혼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맡아왔던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과 함께, 학생으로서 수학과 연구 수행이라는 새로운 부담감이 가중된다(김은하, 임연옥, 박경숙, 김남영, 2008). 조경원(2006)의 연구에서 살펴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기혼일지라도 가사나 양육 문제는 부인에게 위임하고 학업에만 전념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등과 같은 엄마와 아내의 역할까지

1)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2)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공동저자
3)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yunjk5467@naver.com)

병행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해야 하므로 더욱 고충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이 새로운 지식 정진에 참여하게 될 때 가중된 가사와 직장 업무로 인해, 그들 중 상당수가 신체·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같은 육아의 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년여성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혼 중년 여성들은 자녀의 양육 부담 측면에서 시간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이전의 인생 주기보다 훨씬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사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기도 한다(안은미, 허정무, 2015). 그러한 이유로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학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기혼 중년 여성이 박사 과정을 수행하며 생업과 관련된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사회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갈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수 역량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며, 미래의 교사는 학습 현장에서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학문과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한 협업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도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이경민, 2017; 이선영, 2018).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전념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주기적인 교육과 능력 함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 직업인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에 진학한 전업 주부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습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을 통해 자녀와 주변과의 관계가 향상되고 나눔을 실천하거나 직업을 갖게 되고, 또한 자아를 계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고범석, 2013). 이외에도 기혼 여성의 대학원생으로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이 대학원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경험하는 갈등과 배경 원인에 대한 연구(강설화, 2012), 엄마 대학원생의 학업과 육아의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서정원, 2015)와 다중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김은하 외, 2008)도 볼 수 있다. 이동훈 등의 연구(이동

훈, 원지영, 이영순, 2010)에서는 여교사의 교육대학원 재학 경험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원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등의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난 애환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대학원생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 수행의 중복으로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중년의 기혼 중년 여성이 박사 과정의 학업을 수행할 때 얻는 보람과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달성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혼 중년 여성들이 박사 과정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보람과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전략 수립에 필요한 많은 기초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혼 중년 여성들이 박사 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찾는 가치 및 보람, 어려움 등을 탐색·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박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을 지닌 기혼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참여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의 입문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갖게 되는 보람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학습자 개인의 삶과 경험에 관련된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 등에 의한 연구방법이 주를 이룬다(김성현, 2017). 내러티브는 개인이 살아 온 이야기, 이야기된 내용들에 표현된 경험들을 가지고 시작한다. Czarniawska(2004)는 “내러티브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음성 혹은 문자이다.”라고 질적 연구의 한 유형으로 내러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Clandinin(2011)은 내러티브 탐구는 체험되고 말로 표현된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며, 인간이 경험한 것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론이고,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원천인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즉, 내러티브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자료를 모으며, 개별적인 경험들을 보고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주된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거나, 혹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삶의 이야기·현상·역사와 사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telling), 연구자는 그들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것이다(Spradley, 1980).

본 연구에서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중년 여성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가는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연구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혼의 중년 여성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과 과정을 겪어나가면서도 박사 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상과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추출하고 그 삶의 목적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전공은 서로 다르지만 결혼하여 가사 및 육아, 직장생활을 병행하다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문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마친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중년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간의 개인차, 가정환경, 직장환경,

교육환경 등에서 오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박사 학위 과정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고충이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3명과 간호학 분야에서 2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전공과목	참여시기	직업	결혼상태	자녀
A	46	유아교육학	4학기	스토리텔링 강사	기혼	여자 2명
B	49	유아교육학	3학기	전임강사	기혼	남자 1명/ 여자 2명
C	47	유아교육학	수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기혼	남자 1명/ 여자 1명
D	45	간호학	4학기	대학강사	기혼	남자 1명/ 여자 1명
E	50	간호학	4학기	대학조교수	기혼	남자 1명/ 여자 1명

연구 참여자 A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사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2년 동안 근무하였다.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교사를 그만 두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강사라는 직업의 이점을 살려 백화점의 문화센터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출산으로 인해 그만두었다. 3년 정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던 중 기존 경력을 토대로 그림책 강사, 스토리텔링 강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어서 2015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17년에 박사 과정에 입문한 46세의 중년 여성이다.

참여자 B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와 병행하여 4년제 유아교육학과 야간과정에 편입하여 학위를 받았다. 10년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석사 과정에 입문하였다. 첫 아이의 출산으로 힘겹게 석사를 졸업하고 거듭되는 두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역량과 학력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되었고, 학위 취득을 위해 박사 과정에 입문한 49세의 중년 여성이다.

참여자 C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일찍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어서 본인의 석사 학위를 위한 학업과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순조롭게 이어오고 있다. 교사에서 점차 변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직을 수행하다 박사 과정에 입문한 47세의 중년 여성이다.

참여자 D는 간호사로서 대학 병원에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사직하였다. 석사 과정에 입문하면서 대학 조교로 근무하게 되었고, 석사 취득 후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박사 과정에 입문하였다. 현재 남편, 중학생인 아들,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45세의 중년 여성이다.

참여자 E는 간호사로서 종합 병원에서 11년간 근무를 하는 중에 결혼을 하였으며 석사 과정에 입문하면서 사직을 하였다. 석사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박사 과정에 입문하게 되고, 결국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 남편과 초등학생 남매인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50세의 중년 여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해 본 연구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았고, 참여 의지를 확인한 후에 연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또한 생애 사건 등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이야기의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질적 연구의 성격에 따라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였으며, 이외에도 연구에 필요한 정보 외의 모든 신상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알렸으며, 연구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타 연구 결과 보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심층 면접의 방법은 반 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면접 형태는 공식적인 면접과 비 공식적인 면접이 병행되었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커피숍이나 공공장소의 로비,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 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주에 걸쳐 참여자별로 6회 이상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한 번의 만남에 60분에서 1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주제에 따른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면담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이야기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려는 모습으로 경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박사 과정을 수학하다 보니 연구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면담에서 풍성한 경험과 이야기들이 수집되었다. 초기 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 가정환경 및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그들의 경험과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할애하였다. 면접 도중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심층 면담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의 내용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일상 분석, 영역 분석,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과 의미들은 추가 면접, SNS 메시지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과 동시에 전사를 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는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내부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Lincoln & Guba, 1985),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내용을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중심 제목을 기입하고, 이 제목을 하위 단위로 하는 세부 영역을 찾았다(Spradley, 1980). 또한 질적 연구 전문가 교수 3인에게 자료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

료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혼 중년 여성의 박사과정 입문 동기

연구 참여자들이 중년에 접어들어 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대학원의 박사 과정 입문 전 시기를 회상하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고민과 갈등을 뒤로하고 갈망해 왔던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자연스럽게 술회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박사 과정 입문 동기는 ‘차별에서 오는 부담감, 내적 성장에 대한 갈망, 외적보상에 대한 열망’이라는 3가지의 범주로 유목화 되었다.

1) 차별에서 오는 부담감: 직장 내 편견과 박사 학위자와 비 학위자의 급여 차이

시간 강사들은 대학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되며 강의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책임 의식이나 외적 및 내적 능력 등이 전임 교수들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시간 강사에 대한 인식이 전임 교수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전임 교수와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에 대하여 참여하는 비율 및 태도, 보고서 제출 등에 있어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림책 강사, 문화센터 강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시간 강사, 대학 교수 등의 모습으로 이들이 속해있는 직장에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전문가적 역량에 맞는 학력과 함께 경력을 쌓아서 임금에 있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이들의 박사 과정 입문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학력이 임금, 업무 만족 및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만족과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서봉연, 박명희, 김경식, 2014)에서도 탄탄한 직장관과 더불어 임금 상승은 누구나 바라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대학의 평생교육원 안에서 유아교육

학생들하고 자격증 과정을 7~8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나는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강사하고 교수하고 그냥 나처럼 side 강의를 하는 사람을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대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내 스스로가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9. 5)

“제가 어디에 제 이력서를 낼 때가 있었는데 학위란에 석사 졸업이라고 쓰는데 저 스스로 마음이 창피하기도 하고 비참했어요. 그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될 것 같지 않았죠. 주변에는 석사 졸업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9. 10)

“보육지원센터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교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유치원 수업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호를 해주고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프리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도 경력도 중요하지만 학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학위에 따라서 Pay가 달라져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9. 5)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 정말 지치네요. 앉아서 설 자리도 없고, 학생들 리포트도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학생들이 시간강사면 강의를 하지, 무슨 리포트를 그렇게 많이 내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짜증나요. 저는 나름대로 이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PPT 동영상 준비하고 강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받는 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시럽

채점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도 전임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저번에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서 모 교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따리장사라고 말을 하시는데 정말 속에서 울컥했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9. 18)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계약직이니 4년마다 재 위탁을 하는데 법원에서 받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정된 직장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석사하고 박사하고 급여 차이가 있어요. 또 민간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이력, 스펙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9. 12)

2) 내적 성장에 대한 갈망: 학문적 역량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교육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특히 전공이 직업으로 연계된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석사에 이어 박사 과정에 대한 목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며, 바로 순차적으로 밟아가려 했으나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예전과는 달리 주부와 아내, 어머니로서의 여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할 뿐 가족을 통한 삶의 의미만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조경원, 2006).

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는 잠시 지체되고, 마음 한 곳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서야 박사 과정에 입문하였다. 학문에 대한 열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입문한 연구 참여자들의 박사 과정 수행은 학문적 성장이라는 열망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사 때부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생

각하기는 했었어요. ‘석사를 이어서 갈까? 아니면 다른 곳을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석사 지도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가지고, 지도를 못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정년이 되기도 하셔서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지 않았어요. 여기에 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었고, 배우다 보면 ‘학문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죠.”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9. 5)

“석사하고 나서 세 번 정도 박사 과정을 해보려고 등록을 했었죠. 신청을 했다가 계속 포기하고 했었는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9. 12)

“원래부터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석사 학위도 주변의 기대에 겨우 떠밀려서 했었고, 졸업하고 나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기회가 와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참 부족하구나.’ 교재와 다양한 부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도 말로만 떠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유치원 선생님 때는 승급교육이나 워크숍을 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강사가 되니 어디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분야에 저보다 더 뛰어난 여러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학문적으로도 제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9. 10)

3) 외적 보상에 대한 열망: 강의, 지위 향상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후 전공 관련 기관들에서 각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더욱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

고 강의를 하고 싶다는 갈망을 보였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교육, 지도, 상담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신장시켜서 사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왔었다. 그들은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걸어 왔던 값진 실무 경험과 석·박사 과정을 통해 배운 전공 이론들을 접목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보람이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도 거창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 강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아교육을 계속 전공해왔잖아요.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아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과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깐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9. 5)

“최종 목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은 갈망도 생기고... 후학을 양성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 그래서 박사 과정을 했어요. 같이 석사 때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만해도 된다.’ ‘뭐 교수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지금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9. 12)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강의만 하는 거잖아요. 저도 떠돌이 생활은 이제 그만 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저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비정년 트랙이지만 한 곳에서 ‘교수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진짜 듣고 싶고, 제 연구실도 갖고 싶어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9. 19)

위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기혼 중년 여성들은 직장 내·외부의 평가 및 시선, 이력관리, 취업 및 직장 안정성 등에서 오는 부담과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박사 과정 진학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과정 수행의 어려움

1) 학문적 성장에 따르는 내적인 어려움

(1) 본인의 역량보다 어려운 학습 내용
중년이 되어 시작한 박사 과정 수행은 정체성을 찾아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하였으나, 석사 취득 후의 긴 공백 기간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그들은 학문의 급격한 발전 및 변화, 새로운 교수법 도입, 학생 및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 교육 품질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학문들이 폭발적으로 양산되었으며, 지식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권귀영, 2018).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진 후 학업을 수행하려는 이들에게는 변화·발전된 학습 내용 및 교수법 등에 더욱 괴리감을 느끼며 혼란되어 초심과는 달리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학업 수행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박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대학원 OT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고, 과목 소개하고 할 때 벌써 그때 겁을 먹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전에는 고민도 덜했고, 교수님도 잘 지도를 해주셨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처음 박사 학위

를 들어올 때 너무 겁을 먹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뭘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0. 2)

“내가 공부에서 손을 떼었다가 박사 공부를 시작하니 안 배웠던 것도 많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 숨이 헉헉 차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것인지 몰랐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0. 5)

“대학원 동료들이 총 6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4분은 석사를 하고 바로 박사를 공부하러 오신 분이어서 논문도 잘 파악하고, 흐름에 대한 이해가 빠르셨던 것 같은데, 같이 추가 모집으로 들어온 무용 선생님과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나이를 먹어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두 번씩 읽고 가고 그 선생님과 따로 미리 만나서 한 번 더 보고 가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어요. 이해하는 것이 늦어서 따라가는 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늘 집에 과제물을 들고 간 건 아니지만 특히 지도 교수님 수업 전날만큼은 긴장이 되고, 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밤새 과제물에 매달려 있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9. 10. 11)

“교수님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와라. 했을 때 내가 잘 못해서 갔을 때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발전해 봐야겠구나.’, ‘잘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자꾸 잘 안됐을 때 ‘역시 난 부족해. 이런 공부를 하기에는 난 역시 부족해.’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잘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 힘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것 같긴 한데... 내 스스로가 요즘 무너지니깐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0. 2)

(2) 절대적으로 많은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정 및 직장 생활만 병행하다가 중년의 나이에 시작한 학업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오랜 공백을 거친 다음 학문에 대한 재도전은 변화된 교육 운영 체제로 인한 많은 수업 시간, 과다한 학습량 및 과제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느슨한 수업 시간, 적은 과제로 인하여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 오늘날에 비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학문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사 관리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많은 학습량의 요구는 정규 교육과정으로만 해결이 불가능하여 학생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역량 계발을 위해 전공 학습에 대한 많은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은 학생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및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과 오랜 학습의 공백기를 가진 기혼 중년 여성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 부족 및 해결능력 부재로 인하여 고도의 부담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전공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거나 학업 중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마음먹었던 ‘뭘 못하겠어? 부딪치면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이 한 달을 다녀보니 너무 달랐어요. 주 3일을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에 간다고 배려 차원에서 오후 늦게는 수업이 없고 오전에 몰아쳐서 수업을 해요. 다른 잡다한 업무

들을 보고 헬레벌떡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차 속에서 김밥이나 간식을 먹고...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9. 10. 16)

“정신없이 하루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쳐내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겨우 밥을 먹고 책을 보려면 답답해요. 이전에 전혀 배우지 않았던 과목을 접하면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되겠지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넘치는 과제에 막막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9. 10. 5)

“금요일에는 ‘아, 이번 주도 무사히 끝났구나.’ 주말이면 늦잠도 자고 싶지만 엄청난 과제물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실 탁자에는 제 책이 무기같이 쌓여있고 제 딸보다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뭘지...’, ‘뭘 영화를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학생들 과제도 체크해야지, 강의준비도 해야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아득해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0. 5)

2) 학문 외적인 어려움

(1) 동료 대학원생과 인간관계

대학원의 박사 과정이라는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부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소홀해지고, 대신에 대학원 생활에서 알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들로 새롭게 대체되었다. 교수와 학생, 전공 및 연구실의 선·후배, 같은 전공을 가진 동기들, 동일 또는 다른 전공자들, 학업 및 논문연구 수행에 맺

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맺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 수행이란 동일 목표에서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동반 관계를 통해 대학원 생활과 학위 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반면,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발전되지 않고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기들끼리 서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학교 오면 같이 웃고 떠들고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위로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가장 큰 힘이었는데’ ‘최근에는 트러블이 좀 있었죠. 서로의 오해 아닌 오해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0. 17)

“대학원은 숫자도 적고 동질감이 있어서 서로에게 의지하여서 ‘편하다!’, ‘좋다!’ 했는데 서로 너무 친해지다 보니 말을 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다들 민감해져 있고. 학습 면에서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 겹치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상대 선생님을 서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잘 이야기를 해서 풀렸지만 최근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10. 16)

“대표를 하면서는 일단은 저를 많이 도와주시지만 대표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 어렵지는 않으나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좀 앞에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또 빠트렸을 때 ‘내가 왜 이걸 실수했을까? 내가 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하려는 마음들이 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선배들

하는 걸 따라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책임을 져야하고.”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0. 2)

이와 같이 대학원 생활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및 환경, 성격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자의 및 타의에 의해 가끔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 기존과는 다른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위 과정 중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

(2) 가정과 양립하는 다중 역할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가사 및 자녀 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는 엄마·아내·며느리, 사회에서는 직장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다중적인 역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황과 학문을 하는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들을 가진 주부니까 가정의 일도 꾸려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날 먹을 것과 아이들 간식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들어가죠.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일단 집에 들어가죠. 정리하고, 식탁 위를 치우고, 하루 동안 먹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식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챙겨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하니깐 일부러 먹기 편하게 더 챙겨놔요 모든 것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좀 도와주면 될 텐데. 남편은 전혀 안 도와주고, 그나마 해놓은 것도 안 먹고, 라면을 먹은 것 같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0. 29)

“제가 살림을 잘하지는 않아요. 대학생, 고등학생 2명,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 남들보다는 몇 배는 하는 편이죠. 주말은 집안일로 하루가 훌쩍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고되다.’, ‘힘들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책임감에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10. 24)

“시댁이나 친정의 대소사가 있을 땐 예전에는 당차게 꾸러나갔는데, 이제는 ‘아이고, 또 다가왔네.’ 머리가 무겁죠. 둘째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열이 너무 높으니 데려가라’고 제가 수업에서 발표하는 차례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1. 8)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여자들은 자녀의 건강 및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적이 떨어졌을 경우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게 된다(김은하 외, 2008).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은 주간에는 직장생활, 야간에는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휴식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배우자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해결하기보다는 주로 스스로 감내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자신감이 실추되거나 가족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자신의 학문적·직업적 의지가 줄어들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3) 경제적 어려움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높으며,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계 부담금이 커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 2012). 이에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 장학금 지원 정책, 등록금 인상 한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학 정보공시를 통한 등록금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성은, 이상돈, 백종면, 2016). 그러나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정책은 위와 같은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년 여성들의 박사 과정 수행 중 등록금에 관련된 혜택은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처럼 중년 기혼 여성의 박사 과정 수행 경험에서 학문 외적인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난관에도 직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해 2학기는 학비를 대출받았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했고,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1년 휴학을 했어요.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등록금이 비싼 편이고, 큰 아이와 저의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휴학을 했죠. 큰 아이는 전공 특성상 실험·실습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어려웠죠. 휴학을 하니 계속 대출 안 받고 어느 정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쉬고 싶기도 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0. 22)

“솔직히 직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솔로로 다닌 학생들에 비해 우리는 양육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등록금 내는 시기가 다가올 때면 상당히 부담감이 들어요.”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11. 26)

“자녀가 3명인데 뒷바라지하며 제 자신을 위해 박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등록금 납부 시기가 되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저하고 같이 다니는 동기는 남편에게 대학원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왔다네요. 남편은 늦으면 어린이집 일이 많아서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아 놓은 적금으로 1학기를 다녔는데 그마저 없으니 휴학을 하시더군요. 이럴 땐 직장에서 학자금을 어느 정도는 대준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건데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0. 25)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교육비 및 자신의 박사 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끝까지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중도 탈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주변에서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엄마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김은하 외(200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4) 스트레스와 과제로 인한 건강의 적신호

자신이 건강한 상태라고 지각하는 중년 여성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노력 및 대인관계 관리 정도가 높으며, 행복과 연결된다고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김미량, 이동현, 2014; 조남희, 성춘희, 2016). 중년 여성들은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주부로서의 본분에 따른 다중 역할, 직장에서의 바쁜 업무, 일주일에 이 삼일 이상의 대학원 수업 및 많은 과제 수행 등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휴식, 수면, 여가생활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다. 이는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유지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줄 상상도 못 했어요. 박사 과정 1년 차가 되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는 건지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죠. 신우염이 왔는데 열은 펄펄

짧고, 중요한 어린이집 행사는 원장이다 보니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겨우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대학원으로 달려갔죠. 30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러다간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지금도 상상하면 ‘이렇게 까지 내가 해야 하나?’ 생각돼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0. 30)

“몸이 이렇게 나빠진지 몰랐어요. 가슴에 멍울이 생겼는데 검사받으러 가기도 두렵고, 치아가 흔들려서 치과에 안 갈 수도 없어서 갔었죠. 몸이 아파도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몸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난다고 하니 면역증강제도 먹고 있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1. 28)

“소논문을 쓸 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밤도 새워야 하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지도교수님이 어디까지 해오라고 하면 해가야 되는데 머리도 안 따라주지. 몸도 안 따라주지. 책상에서 옆드려 자다가 깬 적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못 일어났어요. 남편이 곧장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0. 25)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많이 아팠어요.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대학원의 과제물도 많으니 자연히 책상에 앉아 책 보는 시간은 늘고, 컴퓨터 앞에서 하는 작업 시간도 많아지니 당연히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하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고, 한의원의 침 맞는 건 일상이 되었어요. ‘걸어 다니는 종합 병동’. 이제는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쌓여가는 건 스트레스와 악화된 건강인 것 같아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0. 31)

이와 같이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박사 과정의 중년 여성들은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질병의 발생 및 삶의 의욕 저하 원인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한 참여도 및 충실도가 떨어지고, 학습능력을 급속도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혼 중년 여성들은 박사 학위 과정 수행에 있어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개선하여 박사 과정 수행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아실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뿐 만 아니라 가정, 대학, 직장, 사회가 앞으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 수행의 보람

1) 학문적 보람

(1) 본인의 역량을 극복한 목표 달성의 보람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에 입문할 때 새로운 도전과 생활에 많은 두려움을 크게 나타내었고 자신의 역량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사 과정에 입문하고 학업에 참여하여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차근차근 학기가 진행되면서 교수님과의 관계,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익숙해지는 대학원 생활, 오랜 공백 기간에서 오는 두려움 및 어려움의 감소,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의 과제 수행 능력과 날로 증진되는 학습 역량 등을 보고 스스로 감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 도전할 때의 두려운 마음은 조금씩 사라졌다. 또한 박사 과정 동안의 생활을 통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기에서 2학기로 진행하니 뭔지 모르게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같이 다니는 4학기의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 자신도 그러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과제 같은 거 하고 나서도, 과제를 주셨을 때,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저 스스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순간순간이 힘들어도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보람이 있고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1. 7)

“‘내가 깊이가 있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교사 교육을 할 때나 학부모들의 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좀 더 전문적인 냄새가 풍기는 논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더 전문적이게 보이잖아요. 배웠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연결하면 설명할 때나 전달할 때에도 내가 배운 새로운 지식들이나 논문들이 연관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1. 20)

“박사 과정에 입문한 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어느새 학기를 다 마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 기뻐요. 뭔가 달라지고 머릿속에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이것이 무슨 말이야.’하고 허둥대고 몰랐는데 이제는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쌓인 것 같아요. 이만큼 헤쳐 나온 내가 자랑스럽고 내 자신에게 ‘너 잘하고 있어.’ ‘별써 다 끝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2. 11)

“제 강의를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같지만... 저 스스로가 느껴요. 그 전에는 하루에 강의가 딱 찬 날은 강의 준비를 할 때 책에 있는 내용만을 겨우겨우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인지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면서부터 강

의 준비를 하면 책의 내용을 뛰어넘는, 뭔가 깊이가 있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졌고 학생들의 반응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1. 9)

(2) 학문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박사 과정의 수업이 지속되면서, 급격하게 발전된 새로운 전공 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접근, 학문 자체의 즐거움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육적·정신적으로 많은 활력을 받았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강의를 통해 얻어진 발전되고 깊은 다양한 내용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만족감, 체계적이고 깊은 내용의 논문을 만나는 기회에서 오는 행복감, 교육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온 삶의 과정과 추구하는 미래 목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유해 보는 정신적인 풍요로움, 현재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립 등을 통해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에 또렷한 방향이 제시되고 학문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학기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나 스스로 뿌듯함과 보람이 생겨요. 처음에는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 따라가질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어려운 논문도 읽어 내려가는 걸 보면서 학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여러 동기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무튼 더 좋은 강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성취감이 들죠.”

(참여자 B와의 면담, 2018. 12. 27)

“이건 다른 얘기인데 난 질적 논문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읽는 건 너무 재미있어요. ‘홈스쿨링’이란 논문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 슬기가 우리 아이의 이야기 기였어요. 저의 딸이 자기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고 자퇴하겠다고 했거든요. ‘나

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내가 굳이 학교에서 공부 왜 해야 되지?’ 개가 1학년, 2학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제 딸은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자퇴하고 싶다고 했죠. 가슴이 덜컥덜컥 무너졌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틀에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도 나중에는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제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서 더 공감이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2. 28)

2) 학문 외적 보람

(1) 주변인들의 내 열정을 인정: 직장, 자식, 남편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의 1차적인 지원 체계로서 남편은 자신의 지속적인 학업 선택에 대한 지지와 다중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이다(김은하 외, 2008). 따라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중년 여성의 박사 과정의 수행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 그 포스터 발표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김 선생님 것 구두 발표하는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희 남편도 박사 수료까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죠. 본인이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하고 석사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안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 힘든 걸 뭘 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교수하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수는 아니어도 그 과정을 해본 사람들은 ‘한번 해봐, 더 해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를 했어도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너만이

라도 꼭 박사를 해라. 내가 뭐 피를 팔아서라도 납부금을 대줄테니까’라고 말해요. 뭐 허삼관 매혈기도 아닌데”

(참여자 A와의 면담, 2018. 12. 28)

“이번 아버지 제사 때 아버지 묘소를 갔는데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친정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동생 박사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안에 박사가 이제 4명이 나오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대개 어깨가 으쓱했어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1. 20)

“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보여주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딸: “엄마,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게 뭘데 이렇게 열심히 해?”

엄마: “발표 준비하고 있어”

딸: “이걸 하면 점수를 많이 줘?”

엄마: “아니, 점수 많이 안 줘!”

딸: “그러면 교수님한테 이쁨 받아?”

엄마: “아니, 이거 했다고 이쁨 받지 않아.”

딸: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엄마: “글쎄 엄마가 왜 열심히 할까?”

“딸에게 ‘엄마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딸도 엄마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아 기분 좋아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1. 20)

이와 같이 참여자 C의 남편은 박사 과정의 꿈을 지지해주었으며, 아낌없는 헌신으로 격려해 주고 있다. 그 덕분에 참여자 C는 한결같음으로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지원과 지지는 여성 박사의 진로 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한 김효선(20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 외에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물질적·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박사 과정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인격 성장

대학원의 박사 학위 과정은 대학 생활과는 다른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관계 형성 또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공 및 지도교수와와의 관계, 같은 전공을 하는 동기 및 선·후배 관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은 학업에 오랜 공백기를 가지며, 직장근무를 하고 있는 기혼 중년 여성들로서 새롭게 시작한 박사 과정을 통해 종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다. 학위 과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삶의 과정 및 생활환경, 성격, 나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업 참여, 과제의 협업, 잦은 교류 및 의사소통 등을 통해 상호간에 이해·공감을 하게 되고, 또한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배우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서 학문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배워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도 같고,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미나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과목 이야기만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선생님들과 교류를 통해 많은 장점을 배우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아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래저래 보람을 느껴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2. 13)

“제가 낮을 참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싫은 사람과는 이야기도 잘 안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이나 보게 되니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성격이 안 맞아서 아예 옆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미운 정 고운 정인지 제가 참아내고 어울리고 있더군요. 그게 참 신기해요. 아마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정이 붙었나 봐요.”

(참여자 C와의 면담, 2018. 12. 4)

“서로 맞지 않아서 한동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살짝 떨어져서 서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혹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니까 이제는 특별히 트러블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서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8. 12. 14)

(3) 쌓이는 경력의 뿌듯함

연구의 참여자들이 박사 과정에 입문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워나가면서 참 힘들어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레포트 해결이나 발표 논문 및 학위 논문을 쓰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들, 동료 및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논문을 쓰며 자신의 학문적 발전과 능력 및 경력이 쌓이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사 과정에 입문해서 이 리포트도 하고 논문도 써보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연구 과제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이 늘어가니 정말 좋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 교수님들과 책도 써보니 저자로서 경력도 생기고 ‘아무튼 박사 공부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해요. 요즘 정말 감사해요.”

(참여자 D와의 면담, 2018. 12. 27)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것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

어요. 학부에서 안 배운 건강사정 교과목도 대학원에 들어와서 배웠지. 간호정보학도 그렇고 간호 관리학도 거의 배우지 않았는데, 아무튼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논문도 제대로 써보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영어로 발표를 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보았는데 해보고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여러 건 했었고, 상도 받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참여자 E와의 면담 2019. 1. 10)

“예전에 EBS를 보는데 한 실험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늦게 왔을 때는 수강생들이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느라 늦었구나.’라고 하고, 특별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늦게 오면 ‘아마추어니까 저렇게 늦지. 프로라면 늦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공부하고, 보고 들은 것과 지금 배우는 이론과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각광받는 것 자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아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갖게 되고 자신감도 생겨요.”

(참여자 A와의 면담, 2019. 1. 4)

이처럼 학위 과정 중 여러 프로젝트와 국제학술대회에서 그 동안 수행하였던 연구 결과들을 준비하여 참여하거나 한국어 및 영어로 발표하면서 자신의 발표 능력의 향상과 연구 및 논문 발표 실적이 증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었다. 또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기재사항이 많아져 직장 구직 시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학이나 관련기관, 사회에서 전공분야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2. 연구 참여자들 박사과정 수행 경험의 어려움과 보람

입문 전	입문 동기	차별에서 오는 부담감: 직장 내에서 바라보는 편견 / 박사학위자와 비학위자 간의 급여차이	
		내적 성장(학문적)에 대한 갈망	
		외적 보상에 대한 열망(강의, 지위 향상)	
수행 중	어려움	학문 내 역량보다 어려운 학습 내용 절대적으로 많은 과제	
		학문외	동료 대학원생과 인간관계 가정과 양립하는 다중 역할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와 과제로 건강의 적신호
	보람		학문 내 역량을 극복한 목표 달성의 보람 학문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
		학문외	주변인들의 내 열정을 인정: 남편, 직장, 자식, 친구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인격 성장 쌓이는 경력(스펙)의 뿌듯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혼 중년 여성이 박사 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삶의 목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색하여서 이에 대한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으며,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중년에 접어들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고민과 갈등을 뒤로하고 꿈꿔왔던 박사 과정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차별에서 오는 부담감, 내적 성장에 대한 갈망, 외적보상에 대한 열망’이라는 3가지의 범주로 유목화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 강사에 대한 역량 평가 대부분 책임의식, 내외적 능력이나 강의 실력이 전임교수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되는 것과, 남들보다 더 나은 역량을 기반으로 임금 상승과 함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박사 과정에 입문하였다. 이는 최종 학력이 임금 및 업무 만족,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석사

학위 이상 등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만족과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연구(서봉언, 박명희, 김경식, 2014)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높은 직위나 탄탄한 직장과 더불어 직장 내에서의 임금 상승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라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여 중년에 접어들어서도 박사 과정에 입문하였으며, 결혼·출산·양육 등의 장벽을 딛고 도전하였으며, 이는 자아실현과 학문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아내와 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일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조경원, 2006).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값진 실무 경험과 박사 과정을 통해 배운 전공 이론 지식을 통해 전공 관련 전문기관이나 대학에서 역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박사 과정에 입문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으로 분류되었다. 학문적 성장에 따르는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어려운 학습 내용과 절대적으로 많은 과제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년이 되어 시작한 박사 과정 수행에 있어서 변화 발전된 학문, 새로운 교수법 도입, 학생 및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 교육품질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고민을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공백을 거치고 대학원 과정에 입문하였으며,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역량 계발을 위해 전공학습에 대한 많은 과제가 부과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부족 및 해결능력 부재로 인하여 과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더욱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학업중단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이며(김은하 외, 2008), 서정원(2015)의 연구에서도 학업과 육아를 양립하는 대학원생은 학업에서의 낮은 효능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문 외적인 어려움은 인간관계, 가정과

양립하는 다중 역할, 경제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와 과제로 인한 건강의 적신호 등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문 외적인 어려움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 및 연구실의 선·후배 관계, 동기들과의 관계, 학업 및 논문 연구 수행에 맺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협조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과 좌절을 가져온 경우를 이야기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가사 및 자녀 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식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자기 만족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이는 육아와 양육을 엄마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연구(김은하 외, 2008)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최성광(2014)의 연구에서 남자 교사들이 박사 과정 수행 중에 가정의 문제는 부인에게 맡기고 도서관을 갈 수 있지만, 여성은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중년 여성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더욱 가중된 어려움과 역할 긴장과 역할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박주희, 2003)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중년 여성들의 박사 과정 수행 중 등록금에 관련된 혜택은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본인과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결국은 중도에 휴학을 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주변에서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엄마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연구(김은하 외, 2008)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 역할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 삼일 이상의 대학원 수업 및 과제 수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여가생활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인 질병 발생 및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 학습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자신이 건강한 상태라고 지각하는 중년 여성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노력 및 대인관계 관리 정도가 높으며, 행복과 연결된다고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미량, 이동현, 2014; 조남희, 성춘희, 2016; 이한아, 유명미, 2019)와 비슷한 내용을

가져왔다.

셋째, 기혼 중년 여성으로서 박사 과정 수행의 보람에 대해서는 학문적 보람과 학문 외적 보람으로 분류했다. 우선 학문적 보람은 내 역량을 극복한 목표달성의 보람과 학문 자체의 즐거움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의 수업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전공 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접근, 체계적이고 깊은 내용의 논문을 만나는 기회에서 오는 행복감, 학문 자체의 즐거움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육적·정신적으로 많은 활력을 받았다.

학문 외적 보람은 주변인들의 인정,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인격 성장, 경력의 뿌듯함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이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친구 등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자신감이 고취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과 가정에서의 지원과 지지는 여성 박사의 진로 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김은하 외, 2008; 김효선, 2013; 이한아, 유영미, 2019).

또한 새롭게 시작한 박사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과제의 협업, 잦은 교류 및 의사소통 등을 통해 상호간에 이해하고 공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동질감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에 입문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워나가면서 힘들어했던 많은 레포트, 발표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써나가면서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능력 및 경력이 쌓이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런 교사의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와 교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인 연구(주현정, 신혜원, 2018; 허은하, 김상림, 2019)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 수행을 통해 학문적 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의 체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역할 수행 경험 등을 하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어느 한순간은 후퇴도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지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느새 자신이 성숙해지고 있으며 탄탄하게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박사 과정 수행 시의 보람에서 볼 때 과제 수행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완성되어 가는 과제물들 속에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과 조금씩 깊어지는 학문에 대한 성장은 자신이 박사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점차적으로 도달해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였다. 학문 외적으로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인정해주고, 남편의 지지와 격려 속에 자신이 박사 과정의 수행을 이루어나가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대학원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박사 수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면서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고, 이해해가면서 묘한 동질감으로 보듬어가며 헤쳐 나가고 있는 것도 보람의 한 면으로 들고 있었다. 이처럼 기혼 중년 여성들의 박사 과정 수행은 어려움과 보람이라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기혼 중년 여성들은 소수자이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삶의 의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의 현실을 이해하기를 좀 더 기대한다.

현재 급진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은 새로운 지식과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역량, 자신과 타인의 고유 특성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인성 역량과 함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볼 때 박사 과정을 수행한 중년 여성들은 시대적 핵심 역량을 체험하고 습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경민, 2017). 미래의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중년 여성 교육자들에게 박사 과정 수행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기혼 중년 여성의 박사 과정 수행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함이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어려움을 하나하나 딛고 견디고 인내해가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융합해 가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중년 여성이 박사 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삶의 목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색하여서 이에 대한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오래전부터 꿈꾸어 오던 학문적 성장의 희망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혼란과 딜레마 속에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치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이를 통해 주체적인 성취감과 학문적 역량 증진과 자신

의 내적 성찰을 통한 자아성장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중년 여성의 박사 과정 수행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소수의 경험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기혼의 중년 여성들이 박사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하는 정책이나 전략수립에 활용하기에는 객관성, 구체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박사 과정을 수행하면서 얻는 의미와 고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시스템, 교육과정, 교육환경, 가족을 비롯한 주변 환경(직장 포함)이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현재 대학원을 다니거나 예정 중인 기혼 중년 여성들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박사 학위 과정 지원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전략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자아실현 및 전문성 향상, 그리고 사회발전 참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설화(2012). 기혼여성이 느끼는 대학원생활의 의미와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범석(2013). 주부의 상담대학원 진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9. 12).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p.13.
- 권귀염(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유아 교사의 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47-72.
- 김미량, 이동현(2014).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와 건강상태지각에 따른 건강증진행동 및 행복의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53(2), 175-186.
- 김성현(2017).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사회참여미술 지도방안 연구: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임연옥, 박경숙, 김남영(2008).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인간호학회지**, 20(1), 113-125.
- 김효선(2013) 신규 여성 박사들의 경력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685-696. doi:10.14400/jdpm.2013.11.12.685
- 노상우, 안동순(2012).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현대 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변화 모색. **교육종합연구**, 10(1), 67-88.
- 박주희(2003).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과 미국 기혼여자대학원생들의 가족 및 직업역할 만족도와 긴장도: 동아시아의 기혼여자 대학원생들의 성역할 재사회화에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1(6), 29-45.
- 서봉언, 박명희, 김경식(2014). 직무일치, 임금 및 업무만족이 직장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35(1), 1-18.
- 서정원(2015).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연구**, 89(2), 83-118.
- 안은미, 허정무(2015).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1(1), 91-111.
- 이경민(2017). 새로운 시대 인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담론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3), 137-156. doi:10.18023/kjece.2017.37.3.007
- 이동훈, 원지영, 이영순(2010). 여교사의 대학원 재학유무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355-374. doi:10.15703/kjc.11.1.201003.355
- 이선영(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 23(1), 231-260.
- 이성은, 이상돈, 백종면(2016). 등록금 조달방법과 근로시간,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2), 1-25.
- 이한아, 유영미(2019). 보육교사의 우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9(1), 1-13. doi:10.21213/kjcec.2019.19.1.1
- 조경원(2006). 젠더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연구논집**, 17, 29-62.
- 조남희, 성춘희(2016).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6), 89-97. doi:10.15207/jkcs.2016.7.6.089

- 최성광(2014).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초등학교 30대 남교사들이 갖는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97-232. doi:10.17318/jae.2014.17.1.005
- 허은하, 김상림(2019). 유아교사의 교사전문성과 직무만족도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1), 145-157. doi:10.21213/kjcec.2019.19.1.145
- Clandinin, D. J.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강현석 외 역). 파주: 교육과학사(2011 원저 발간).
- Czarniawska, B. (2004). *Narrativ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London: Thousand Oaks, CA.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Paris.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Narrative Inquiry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Married Middle-aged Women

Hyun Sea

Professor, Dept.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Kyeong Ah Yun

Time lecturer, Dept.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Yun Joo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I explored the difficulties and rewards of the experience of married middle-aged five women with jobs through narrative inquiry. The graduate course work of married women with jobs is accompanied by more difficulties due to the multiple roles of wife, mother, worker, and student.

Methods: Data from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took 15 weeks from September 1, 2017 to December 20, 2017. Six in -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ach of the five participants, and 60 to 120 minutes were required for one meeting.

Results: The researchers gathered stories of married middle-aged women who had undergone doctoral studies and divided them into three categories: 'motivation for entry, difficulty during doctoral study, and rewarding during doctoral stud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is expected to be a concrete resource for supporting married middle-aged women in doctoral programs.

Keywords: a married middle-aged woman, doctoral course experience, performing multiple roles, narrative inquiry

Received April 30, 2019

Revision received May 26, 2019

Accepted June 12, 2019